

서문

정준호†

감염병은 더 이상 인류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난 세기의 낙관론을 비웃기라도 하듯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등 신종감염병의 역습이라 불릴 시기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초연결 사회 속에 살아가며 전세계가 하나의 질병 권역으로 엮여 있는 현대 사회에서 감염병은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 안에 내재해 있던 균열과 갈등을 촉발시키며, 감염병의 유행이 단지 생물학적인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며 문화적인 것임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는 감염병에 대한 고찰에서 생물학적인 영역 뿐 아니라 다층적이며 다면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감염병, 그리고 감염병이 촉발한 현대의 다양한 문제들은 역사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감염병에 대한 이해와 인식, 그리고 그 대응 과정과 기술들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 또한 그러한 역사적 성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현재적 의미는 무엇일까. 최근 과학사와 의사학 분야에서는 감염병사에 대한 개별 연구자들의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질병과 사회의 관계에 천착하는 연구 과제들도 조직되고 있다. 그중 개항 후 일제강점기까지의 시기는 근대적 의학 지식과 방역 체계가 형성되는 기간으로, 한국 보건의료에 있어 하

나의 원형을 찾을 수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많은 연구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개항 후 일제강점기까지 근대 한국의 보건의로 체계에 대한 연구는 신동원, 박윤재의 선구적인 저작을 필두로 하여 근대적 검역과 방역 체계의 형성, 개별 질병에 대한 대응 체계, 질병 개념과 인식의 변화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¹ 이러한 연구 성과의 축적에 힘입어 근대 한반도의 감염병에 대한 보다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접근, 또한 기존 연구 성과에서 잘 다루어지 않았던 주제와 행위자들에 대한 접근도 가능할 것이라 기대되었다.

그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2022년 1월 20일 “일제강점기의 감염병과 위생”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기획되었다. 이 자리를 빌려 발표 주제들을 논문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조언해주신 학술대회 토론자와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린다. 이 학술대회는 근대 시기 한반도에서 감염병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나 사회 기반시설 구축이라는 거시적 측면을 조망함과 함께 미시적으로 우물이나 백신 같은 보건학적 기술들의 역할을 함께 살펴보고자 했다. 한편 이러한 대응의 기반을 구성하는 세균학의 발달, 의학 용어의 도입을 통한 전염병, 세균, 위생, 질병 인식의 형성 과정을 파악하고, 나아가 가축과 같은 동물 전염병 사례를 통해 한반도의 질병 생태계를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경험했듯 감염병은 초국적 성격을 지니는 동시에 인간 사회를 포함한 생태계 전반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질병과 사회 대응의 변화는 해당 질병을 경험하는 사회와 사회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다.

이번 특집은 위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주제 중 근대 의학 교과서의 번역 과정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근대적 병리학 지식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살핀 연구, 일제강점기 가축 위생 전략과 그것이 드러내는 식민지 수의학의 특성을 살핀 연구, 일제강점기 한반도 콜레라 백신 접종 사업과 그것이 국제위생회의에 미친 영향을 살핀 연구를 담고 있다.

하세가와 사오리와 최규진의 연구는 병인론과 병리학에 기초한 근대적 의학관이 감염병 대응의 기초를 이루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한반도에서 이러한 근대적 병리학 지식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경로를 의학교과서인 『병리통론(病理通

¹ 신동원, 『한국근대보건의료사』 (한울, 1997); 박윤재, 『한국 근대의학의 기원』 (해안, 2005). 한국 근대 보건의료 및 전염병사 연구에 대한 동향은 박윤재, “한국 근현대의료사의 연구동향과 전망 (2010-2019): 사회사적 관점의 부상과 민족주의적 이분법의 약화”, 『의사학』 29:2 (2020), 425-463을 참고하라.

論)』으로 추적하고 있다. 일본의 판본과 한국의 번역본을 비교하며 독일, 일본, 한반도로 이어지는 의학 지식의 유통 경로를 드러내는 동시에 근대적 의학 지식의 형성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근대 이후 감염병에 대한 의학적 이해가 어떻게 구성되어 갔는지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천명선의 연구는 이전까지 감염병사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가축전염병의 문제를 다룬다. 특히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 발생한 우역이 비위생적인 것으로 인식되면서, 제국의 수의학을 기반으로 한 식민지에 대한 강압적 가축 위생 조치의 개입을 정당화하게 되었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위생이라는 활동이 의학을 통한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뿐만 아니라 가축을 매개로 전개되기도 했음을 보여준다. 즉 위생을 근간으로 한 근대화 기획의 다양한 경로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기도 하다.

정준호의 연구는 1919-20년 한반도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된 콜레라 백신 접종 사업과, 이를 기반으로 축적된 통계적 자료가 이후 일본을 통해 국제사회에 소개되는 과정을 살핀다. 이는 식민지에서 생산된 의학 지식들이 국제위생회의 같은 국제무대에서 제국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동시에, 과학적 논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드러낸다.

이 세 편의 논문들은 기존 감염병사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요소들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의학지식의 번역과 전파에 다른 지식의 전용과 변용, 감염병에서 주요한 행위자 중 하나인 가축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수의학의 역할, 백신과 같이 감염병에 대응하는 의학적 기술들과 이를 통해 창출되는 지식의 의미에 대한 고찰들이다. 이러한 연구들이 향후 감염병사 그리고 의사학 및 과학사 연구를 다양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